

## 캘리포니아주, 모든 교회 1백 명 이내 '현장예배 허용'

5월 31일 오순절 기점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두고 교회와 주 정부 사이에 팽팽한 대립 및 법적 공방을 벌여온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5일 "모든 교회에 현장예배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5일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이날 각지의 카운티 행정부에게 '종교 시설 재개 지침서'를 배포하고 교회와 예배당의 재개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교회는 보건부의 승인을 받아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예배 참석인원은 건물 수용 인원의 25%만을 허용했고, 최대 1백 명 이하로 제한했다.

예배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성경과 찬송가, 기도용 러그 등은 공동사용을 피해야 한다. 교회는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예배당 정기 소독, 손 세정제 비



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안전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5월 8일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해제해 식당

등 음식점, 서점, 꽃집 등을 시작으로, 9일에는 산책로와 공원, 골프장이 사업을 재개했다. 또 18일을 기점으로 약 95%의 소매점이 영업을

재개하고, 가게 밖에서 물건을 전달하거나 배달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종교집회 및 현장예배에 관해선 여전히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목회자들은 주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현장예배 재개를 허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일부 목회자들은 "미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개빈 뉴섬 주지사, 하비에르 베세라 주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윽고 캘리포니아 수천여 교회들은 주 정부의 허가나 상관없이 다가오는 5월 31일 오순절을 기점으로 현장예배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미시간주 흑인 지도자 면담에서 기자들을 만나 "교회 및 종교시설은 국가의 정신에 있어 필수적인 장소"라며 교회 재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비쳤고, 22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지사들에게 교회를 재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는 사흘 뒤 '종교시설 재개 지침서'를 발표하고 모든 교회에 현장예배를 허가했다. 김근혜 기자

## 미주 한인사회 상담 절반 '가정 내 불화'

생명의전화 1-3월 한인 상담통계, 576건 중 46% 가정 불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생명의전화(대표 바다윗 목사)에 상담을 신

청한 한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정 내 불화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자별 분류에 따르면 부부갈등으로 인한 가정폭력, 배우자 부정, 이혼, 의처증을 포함한 정신, 정서 장애, 가족 및 형제간 갈등, 자녀 교육 및 갈등 등 가정 불화에 대한 문의가 576건의 상담건 중 46%로 가장 높았다.

또 고독과 외로움, 자살충동과 비관으로 고통받는 한인들도 18%로 한인들의 정신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친 상간을 포함한 성도착, 성폭행, 동성애에 대한 상담도 12%에 달했다. 생명의 전화 바다윗 목사는 "미주 한인 동포사회에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가정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고독과 외로움, 자녀와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한인들 가

운데는 가정 불화가 우울증이나 증독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다윗 목사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많은데, 생명의전화는 주야로 상담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미주에 사는 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재기하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생명의 전화 바다윗 목사

생명의전화 상담  
 213) 480-0691 / 866) 365-0691

김동욱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파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교는 되고, 교회는 안된다?...교회 재개방 차별 없어야”

태평양 법률협회(PJI 대표 브래드 데쿠스)는 5월 22일, 캘리포니아 캘러베라스 카운티의 두 교회를 대신해 “교회 재개방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주장하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동부지역에 제출된 이 소송은 주지사가 행정 명령을 통해 종교 집회를 위험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뉴섬 주지사의 5월 4일 행정 명령인 “재개방 계획”은 국가 재개를 위한 4단계에서 캘러베라스 카운티는 교육을 목적으로 개학은 2단계로 허용됐지만 교회는 3단계로 개방을 할 수 없

게 했다. 캘러베라스 카운티의 두 교회인 마운틴 크리스천 펠로우십(Mountain Christian Fellowship)과 레퓨지 처치(Refuge Church)는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자가 격리를 철저히 지켜왔으며, 카운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만 13명 보고됐을 뿐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망자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서 교회를 변호하는 태평양 법률협회 케빈 스나이더 변호사는 “이 교회들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Facebook/Gavin Newsom



태평양법률협회 설립자, 대표 브래드 데쿠스 ©Pacific Justic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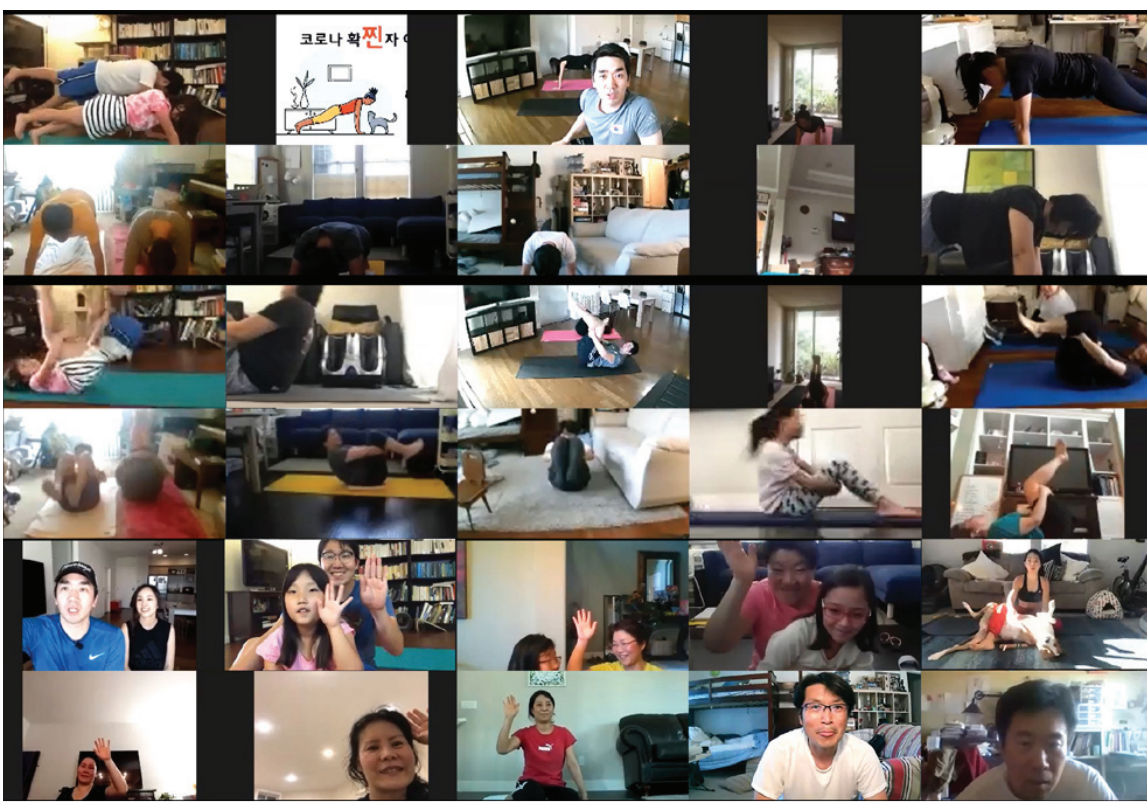
며 “학교 건물과 교회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두 기관에 대해 동일한 보건 안전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평양 법률협회 대표 브래드 데쿠스는 “뉴섬 주지사의 노골적인 종교 억압에 도전해 교회가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모인 갖기를 기다렸다”며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끌고 갈 용의가 있는데,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다음 세대에 필요한 신앙적 발판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 “LA 온누리교회 온라인 퍼스널 트레이닝에 초대합니다”

###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 2기 모집, 5월 26일 오후 5시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운동



지역사회를 위해 로스앤젤레스(LA) 온누리교회 마련한 온라인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전 국가대표 선수가 이끄는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가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로스앤젤레스(LA) 온누리교회(담임 이정엽 목사)가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의 연장을 결정하면서 추가 수강

생 모집이 가능해 진 것. 2기 수강생들은 오는 26일(화)부터 6월 19일(금)까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에 참석해 무료로

운동을 배울 수 있다.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는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체력 약화와 체중 증가라는 고민에 빠진 한인들을 위해 개발된 ‘자기돌봄(Self-care) 온라인 특강’이다.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이자 퍼스널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배 코치가 강사를 맡아 ‘퍼스널 트레이닝’에 버금가는 시간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LA는 물론 시애틀, 필라델피아를 비롯해 한국에서도 참가자들이 접속을 하는 등의 인기를 누렸다. 1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약 100여명이 접속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온라인 상으로 친분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과 8회 강의에 모두 참석한 송인서씨(45)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무기력해지고, 아이와도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었는데 정기적으로 운동 클래스에 참가하니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강사께서 자세 교정도 해

주고,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한 달 더 연장되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련한 LA 온누리교회 측은 “1기 행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셨고, 호응도가 높아서 한 달 더 함께 운동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 건강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의는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사용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웹사이트(Yu-DoGo.com)에서 등록을 하면 이메일로 접속번호를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다.

LA 온누리교회는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지식을 나누는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다.

**LA 온누리교회**  
자기돌봄(Self-care) 온라인 특강  
확진자 예방 프로젝트  
5월 26일-6월 19일  
(매주 화, 금요일 오후 5시)  
문의 : <http://yudogo.com>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http://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시애틀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mailto: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원하트 미니스트리, 미자립교회 렌트비 후원 4천달러 모금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지난 15일, 한인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온라인 워십 콘서트 'Tomorrow Together (이하 TT)'를 개최했다.

온라인 워십 콘서트 TT는 YouTube 채널 두 곳, 원하트 미니스트리의 채널 'Oneheart tv'와 'Ruach 호흡'이라는 CCM 전문 스트리밍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영됐다.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COVID-19으로 인해 교회 렌트비조차 낼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미자립교회의 상황을 소개하며, 이 콘서트의 주제 말씀인 "일어나 함께 가자(아가서 2:11-13)"를 통해 함께 후원에 동참할 것을 장려했고 콘서트 참여자들은 4천 달러 넘게 후원하며 미자립교회 돕기에 마음을 모았다.



남가주 지역 문화사역단체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한인 미자립교회 후원을 위한 온라인 워십 콘서트 'Tomorrow Together'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를 위해 한국의 유명 찬양사역자인 강찬 목사, 김브라이 언, 정신호 목사(E-Cove Ministry)

가 참여했으며 고창현 목사(토렌스 제일 장로교회)가 메시지를 전했다.

고창현 목사는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예배는 교회당을 넘어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어려운 이때에 주변을 돌아보고 돕는 것 또한 예배의 일환임을 기억하고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의 미자립교회 후원에 동참하려면 Venmo, Paypal, GoFundMe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체크를 보내 동참할 수 있다.

한편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남가주 지역에서 찬양과 다양한 문화기획으로 활동하는 문화사역 단체다.

김동욱 기자 문의 myoneheartministry@gmail.com, 213-347-5080

## 소망소사이어티 코로나 사태 속 이웃 사랑 나눔 이어져



살롱장애인복지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유분자 이사장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사역단체 살롱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와 미혼모 및 편모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 무지개 선교회(대표 이지혜 목사)에 각각 2천5백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후원금은 실비치 시니어 단지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가 기탁한 것으로 '본인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망소사이어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소사이어티 이외에도 UEC

와 미주복음방송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말부터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360명에게 1,300개의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아프리카 차드에 지역 사회 구호를 위해 3천 달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전문 종교지도자 배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한인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을 종교지도자 24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가 지난 3월2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인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과정1, 2회차는 한인가정상담소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이후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자택대피령(Safer at Home)' 지침에 따라 나머지 강의를 실시간 화상수업을 통해 이뤄졌다. 수업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인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개설했다.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초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한인가정상담소가 한인종교지도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 종교지도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시도된 온라인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참석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식 인증 기관이며, 수강생 전원에게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에이미 김 수강생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지원 서비스를 하

고 있는 한인가정상담소의 관련 부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 사례와 상담법, 지원 방법 등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며 "보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해 배워 건강한 한인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면 좋겠다" 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한인가정상담소는 40시간 교육과정은 물론 1박2일 목회자 수련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고 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 외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형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목사(성신대 명예교수), 이윤희목사(예수전도단), 송정영목사(복음선교회), 권준목사(주빌리교회), 신정민목사(복음선교회), 유관지목사(통일교회), 김민석목사(KCC공동대)

\* 영의 책은 아예 번역비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김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아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기록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명: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독자신문**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 (425) 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몸자가 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남게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59**

### “터키 이스탄불 앞의 부욕아다섬에서의 기도의 날 회상”

예년이면 필자는 터키에서 한창 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이다. 모든 선교의 일정이 미루어져서 7월을 기약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이스탄불 앞바다에 있는 부욕아다섬(큰섬이란 뜻)으로 4, 5월 중에 “성인의 날”이 되면 수만 명의 터키 현지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섬으로 몰린다. 섬은 산처럼 오르는 길로 되어 있는데 산 정상에는 그리스 정교회 소속의 예배당이 있다. Saint George Church이다. 분명 기독교 교회였다. 이슬람 국가라 자처하는 터키에서 그것도 최대의 도시인 이스탄불 앞바다의 한 섬에 무슬림 현지인들이 몰리는 이유는 그 교회로 가서 그리스도인 사제에게 기도를 받고자 함이다. 참으로 신기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도자들도 같이 울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감격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못하게 했다. 같이 울고 같이 영접기도까지 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올해도 4, 5월에 세계 각처에서 복음전도를 위해 수백의 그리스도인들이 부욕아다섬을 올랐어야 하는데 코비드 19의 상황 속에서 그 기도의 날이 지나가고 말았다. 영혼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올해 참여하려 했던 모든 동역자들의 마음일 것이다. 무슬림 현지인들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모이는 그날은 우리 선교 동역자들은 놓칠 수 없는 날이다. 물론 그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는 기복신앙인 것도 알고, 그 짧은 기도 하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이 얼마나 될까 의심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있으나 필자는 그것이 선교의 힘이라고 믿는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다만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전 3:6) 기복신앙으로 왔다고는 하나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터키 현지 사역자들에게 그들의 연락처를 전달하게 되면 그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그 영혼들과의 만남을 통한 복음전도의 기회가 생겨 지기도 한다. 이렇게 부욕아다섬에서의 기도사역을 한 후에 선교팀들은 이어서 터키의 전역으로 전도사역을 하러 떠나게 된다. 애 그 기쁨, 그 행복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을 하나님의 인도로 읽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나도 그 거룩한 현장을 밟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받기 위해 몰려오는 터키 현지인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는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열방 선교에 교회와 성도들, 특히 부르심을 입은 목사님들이 더 많이 참여하기를 기도하며 속히 열방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날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모은다.

시작은 이렇다. 우연히 불치 병을 앓고 있던 한 무슬림 현지인이 그 섬에 와서 산 위에 올라다가 정교회를 보고 들어가 사제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를 받은 후에 병에서 완치되었다 한다. 그것을 계기로 그 교회는 신령한 장소가 되었고, 매년 4월 28일을 전후로 많은 병자들이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각종 기도제목을 갖고 현지인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했다. 정교회 사제들이 자기들로는 몰려오는 현지인들을 다 기도할 수 없어서 그 지역의 현지인 개신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에게 같이 기도 사역할 것을 제안했고, 현지인 개신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인파로 인해 터키 선교사 협의회에 같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터키 선교사 협의회에서 또다시 한인 선교사들에게 기도 사역자들을 동원해 줄 것을 청한 것이었다.

이른 아침 8시부터 해가 질 녘까지 근 10시간 정도를 기도받기 원하는 현지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다리가 통통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목청이 상할 대로 상했음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가만 두지 않았다. 기도하기 전 그들의 기도제목을 듣고 그들에게 물었다. “나는 그리스도인 목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들은 “안다며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기도자들은 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에서 고침 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며 그리스도를 증거 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우는 이들이 있었다. 영접이 일어났다. 그런 영혼들 앞에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던 기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행복 만들기 (13) 용서

## 용서의 신학적 개념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한나 무어는 “용서는 마음의 경제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서는 분노의 비용을 절감시켜 영혼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는다(It saves the expense of anger, the cost of hatred, the waste of spirits).”라고 주장합니다. 참으면서 용서하는 것이 분노와 증오의 비용을 없애고 영혼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쌓이고 쌓인 마음의 고통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용서는 신앙생활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며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의미이고(눅23:34),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눅11:14).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용서하심과 같이 나도 용서하여야 합니다(엡4:32). 만일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마18:35). 이 말씀에 대한 해석학적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본문에서 주님은 용서 실천을 강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용서를 의무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용서 범위는 더 도전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숫자적인 490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없는 용서를 말씀합니다. 현대는 용서에 인색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반격하고 복수하겠다는 각오로 삽니다. 용서하거나 양보하려 않습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심리학과 에버렛 워딩턴 교수는 1955년에 어머니가 살해되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청소년 강도들에 의한 피살이었습니다. 밤새 어머니가 살해되는 장면이 떠올라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에버렛은 ‘용서’를 공부하고, 용서에 대해 가르치며, 용서에 대한 글과 책을 쓰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용서에 대해 강연을 하고 또 용서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상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자신은 용서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용서는 큰 도전입니다. 용서를 시도해본 사람은 용서가 쉽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는 용서 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불가능한 용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버렛 워딩턴 박사의 고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 글의 독자 중에 상당수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인 필자에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 인간들의 것이 아닙니다. “실수는 인간의 것이요,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용서는 하나님의 소관 사항입니다.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 결심과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용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임한 용서의 의미를 알 때 용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

나님의 은혜로서의 용서를 이해할 때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용서하기 힘들 때,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은혜로 받은 용서를 생각할 때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입은 자의 자존감과 당당함을 갖습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의 당당함과 부유함을 가질 때에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받은 채무자의 용서!’**의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빛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빛진 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받은 용서의 빛진 자입니다. 이 빛진 자의 마음이 사명감이 됩니다. 바른 신앙인은 빛진 자의 채무감이 있습니다. 빛진 자의 채무감이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독일인 아버지와 월남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졸지에 고아가 된 소녀는 중국 식당에 팔려갑니다. 죽지 못해 사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다 미국 군사 고문관의 양녀로 미국에 옵니다. 양부와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공부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빛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1985년 올해의 교사라는 상을 받은 테리 도저(Terry Dozier)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빛진 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신학적 용서의 개념은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용서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는 우리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가 우리들의 심각한 고민이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인 까닭입니다. 나아가 용서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용서하는 자의 마음도 용서받을 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킴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메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법전문시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부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방송,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http://www.davidlimlaw.com)

##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 강순영 목사의 부흥을 사모하며

## (4) 조지 윗필드와 영국과 미국에서의 부흥운동

#### 사도 바울 이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리는 영국의 설교자 조지 윗필드 (George Whitefield, 1714-1770)

영국과 미국을 누비며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조지 윗필드!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전도자였기에 그가 설교했던 곳마다 회개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따라서 그를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전도자였다고 그를 칭송한다. 오늘날도 조지 윗필드 같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전도자가 절실히 요청된다. 조지 윗필드를 소개하려 한다.

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령의 비추심을 받으며 철저히 과거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한다. 그 결과 죄용서의 기쁨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듭남의 확신과 이로 인해 넘쳐나는 기쁨과 찬양을 체험한다. 이런 확신 속에서 9개월 동안 기도과 성경연구에 집중하며 새 생명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의 삶은 겸손하고 성자 같은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성령께서 복음에 대해 명확한 깨달음을 갖게 하였고 그의 심장은 복음으로 불이 붙게 된다.

미국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

그의 설교내용은 빈약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청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같았고 천둥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의 설교를 듣기위해 농부들도, 광부들도, 사업가들도 모두 일손을 놓고 그가 설교하는 곳으로 몰려들어 집회장소가 수용할 수 없었다. 또 시기로 인해 모임 장소를 내주지 않아서 옥외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만명, 2만명, 3만명, 8만명까지 마이크 없이 그의 설교를 듣기도 했다. 윗필드가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임한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집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고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

웨일즈등 영국 전역에 그의 설교 결과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 결과 영국사회가 도덕적으로 새로워졌고,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으며, 교회마다 생명이 더해졌다. 윗필드는 윗필드포스트를 중심으로 노예제도 폐지운동도 일어났고, 부흥운동의 결과로 런던선교회, 글라스고우선교회 등 선교회들이 조직되어 선교사 파송이 시작되었다.

6. 윗필드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님께 사로잡힌 전도자였다. 성령님은 그를 통해 사도바울 이래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는 1714년에 영국의 글로스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부친을 잃고 험하게 자랐다. 훗날 그가 훗날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모든 죄를 지으며 자랐다'고 고백한다. 18세에 술집에서 일하다가 옥스포드로 가서 펍북 칼리지에 입학해 공부에 열정을 쏟았다. 옥스포드에서 요한 웨슬리가 이끄는 Holy Club 모임에 가입해 성경읽기, 고전읽기, 구제, 선행, 금식등 엄격한 훈련을 받으며 웨슬리 형제들과 우정을 맺는다.

#### 조지 윗필드의 부흥 사역

당시 영국의 상황은 합리주의, 개몽주의, 이신론이 지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침체되어 있었고 사회는 각종범죄들이 난무했으며 감옥은 죄수로 넘쳐났다. 주일에는 각종 스포츠와 음악파티, 카드파티가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들을 예바로 부터 빼앗아갔다.

#### 조지 윗필드의 부흥사역 정리

1. 거듭남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듭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했다. 때로는 거듭나지 않고 설교하는 자들을 무섭게 질책하기도 했다. 그의 첫 설교집 제목도 "거듭남의 본질과 필요성에 관하여"였을 정도로 거듭남을 강조했다.
2. 몰려드는 인파와 설교단을 빌려주지 않음으로 요한 웨슬리보다 먼저 옥외집회를 시작했다. 그가 설교하는 곳마다 대단한 인파가 모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사람들의 회개와 변화가 놀라와 영국부흥운동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3. 브리스톨, 런던, 스코틀랜드,

4.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은 미국을 7회나 방문하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조지아, 필라델피아, 보스턴, 노샘프턴 등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 부흥운동의 불이 타오르게 하셨는데 마지막 보스턴 집회에서는 보스턴 인구보다 더 많은 3만명이 모일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다. 노샘프턴 집회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만나 그와 더불어 뉴잉글랜드지역에 제2기 1차대각성운동이 다시 불붙게 되었다.

5. 윗필드 사역의 결과로 그를 수장으로 칼빈주의 감리교협회가 생겼고, 18개월 후에 웨슬리를 수장으로 (알미니안)감리교운동이 결성되어 두 감리교회가 대립되자 그는 분열을 막고, 그리스도보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장직을 포기하고 웨슬리를 감리교운동의 수장으로 세움으로 오늘날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운동의 창시자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윗필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델이었다.

이 시대의 부흥을 사모하는 작은 종 강순영 목사

#### 조지 윗필드의 회심

그는 찰스 웨슬리로부터 헨리 스퀴일이 쓴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책을 읽고 참된 신앙이란 선행, 윤리적인 실천, 도덕적인 삶, 교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며,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것임을 깨닫는다.

윗필드는 1736년 21세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성공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첫 설교를 어린 시절 세례 받은 교회에서 했는데 첫 설교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청중들은 사로잡혔고 15명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윗필드가 성령에 사로잡혀 권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은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곳곳에서 그를 초청함으로 5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까지 34년 동안 18000번의 설교를 하면서 영국과



강순영 목사  
JAMA대표  
한국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사,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8-1000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Email: sec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사,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美 복음주의자들, 트럼프 '교회 재개 발언' 적극 환영·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교회와 예배당 등 종교시설을 '필수적 장소'라 지시하며 주지사들을 향해 '현장예배 재개 허용'을 촉구한 것과 관련,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적극적인 환영과 감사를 표하며 지혜롭게 교회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23일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명 저자이자 조지아주 게인즈빌 멀티사이트교회(Multi-Site Church) 프리 채플 텐데젠 프랭클린 선임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께 정말 감사 드린다"며 "당신(트럼프 대통령) 뒤편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지혜롭게 교회를 재개할 것이며, 이는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 히스패닉 기독교 지도자 컨퍼런스' 대표이자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뉴시즈교회 담임사무엘 로드리게 목사는 "미국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는 필수적인 장소"라고 강조하며 "교회들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현



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조니 무어 목사 트위터.

장예배 지침에 따라 교회를 안전하게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전역에, 연방적으로 이 진리(truth)를 인식시켜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라코회 마일스 맥퍼슨 목사는 "마침내 교회가 '필수적 장소'로서 인식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로 눈을 돌린다"며 "백화점 혹은 레스토랑에

서 희망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교회는 기도와 상담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적인 필요를 제공하는데 전문적이다. 미국 전역의 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각각의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

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미국 국무부 소속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f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조니 무어 목사,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그렉 로리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신앙이 '필수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주지사들에게 인식시켰다"고 치켜세웠다.

4만여 명의 교인이 참석하는 텍사스주 플라노 프레스턴우드 침례교회는 5월 말에 현장예배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잭 그레이엄 선임 목사는 "예배당에서 다시 교인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종교시설 재개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종교시설을 정상화할 경우 비누와 손소독제 제공, 마스크 착용 권장, 일일 청소 등과 함께 성경이나 찬송가 공유 제한, 결혼식, 장례식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김근혜 기자

# 코로나 기간, 새들백교회가 소그룹 3천개를 시작한 방법

조슈 허트 작가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코로나19 기간 새들백교회가 3천개의 소그룹을 시작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릭 워렌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 코로나 기간 3천개의 소그룹을 추가했다고 언급했다. 새들백 교회는 약 6천여개의 소그룹으로 시작됐고 현재 약 9천여개의 그룹이 있다.

바비 언저(Bobby Unser)는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나는 곳"이라고 말했다. 새들백의 스토리는 그와 같다. 그들은 이 순간을 30년 동안 준비해 왔다.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 1.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며 믿음으로 가득 찬 태도

이것이 나의 첫 관찰이었다. 우리 대부분이 장애물과 문제를 보고 있을 때 새들백은 기회를 보았다. 리크 워렌(Rick Warren) 목사와 소그룹 담당인 스티브 글래든(Steve Gladen) 목사는 세상이 최악일 때 교회는 최고라는 것을 강조했다. 교회는 9.11이라는 비극 중에 성장했다. 사람들은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경향이 있다.

## 2. 적응, 조정, 시도 및 학습에 대한 의지

나는 몇년 전 리크 워렌 목사와 소그룹 지도자를 '평신도 목회자'(Lay Pastors)라고 부르는지를 알게 됐다. 그는 평신도 목사의 지위를 높이고 싶다는 생각을 매우 강조했다.

당시 '목자'(Shepherds), '소그룹 리더'가 있었다. '리더'는 약간 무겁게 느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룹을 이끌 준비가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또한 새들백교회는 'H.O.S.T.s'라는 영상 기반 커리큘럼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소그룹 리더십으로의 진입을 낮추었다.

새들백교회의 소그룹은 제자 훈련 그룹은 아니지만 다섯 가지 목적의 균형을 이룬다. 이 그룹에는 예배, 진교, 교육/제자 훈련, 봉사 및 전도 영역이 있다. 이 프레임 워크는 소규모 그룹의 새들백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한다.

새들백교회는 지난 2002년부터 온라인 교회를 시작했으며 2009년부터 온라인 그룹을 시작했다. 온라인 그룹에 대한 10년의 경험은 코로나19 위기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릭 워렌 목사. ©NRB 제공

스티브 글래든 목사는 두 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룹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새들백교회는 리더에게 스타터 키트를 제공하고 이것을 사용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새들백교회의 소그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다. 새들백교회가 매년 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티브 글래든 목사는 새로운 그

룹의 95% 이상이 캠페인을 통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새로운 그룹을 만드는 것은 소그룹 사역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각 그룹을 더 크게 만드는 사역보다는 새로운 그룹을 시작하는 것이 사역을 성장시킨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기존 그룹을 나누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것에 반대하고 이 전략은 많은 저항을 만날 것이다.

더 나은 방법은 모든 새로운 사

람들로부터 새로운 그룹을 시작하는 것이다. 리크 워렌 목사는 문자 그대로 교회 앞에 서서 "두 사람친구가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라고 질문할 것이다. 누구나 손을 들 것이다. 리크 워렌 목사는 "그러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친구가 두 명이라면 소규모 그룹을 시작할 수 있다.

## 3. 하나님의 주권

릭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서 서피와 파도에 대한 은유를 공개했다. 교회를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물결을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협력하지 않으면 건조가 된다.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파도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하나님의 손길이 이 계절에 보였다. 새들백교회는 최신 캠페인을 시작하자마자 분리됐다. 리크 워렌 목사는 "두 명의 친구가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작은 그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3천명이 손을 들었다.

이미경 기자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 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sup>UP</s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 총신 교수 25명 “이상원 교수 해임, 수용 어렵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있는 예배당 ©총신대

## 입장문 발표... “중징계 재고해 달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25명이 이 학교 법인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이승현)의 이상원 교수(조직신학, 기독교윤리) 해임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학교를 섬겨오신 이상원 교수님께 최근 내려진 해임징계로 인해 총신 공동체 안에 다시 큰 아픔이 발생했다”며 “이 일로 인해 총신대학교를 바라보는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 한국교회 전체의 우려 앞에서 우리들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로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우리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과 교육의 목적을 다시 되돌아 본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토대로 삼고 있는 개혁신학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창세기 1:27),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의 본래의 모습과 남녀 양성 간의 바른 관계가 타락을 통해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왜곡된 모든 인식들 역시 타락의 결과라고 생각하며(로마서 1:26~27),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가르치는(에베소서 1:7) 성경의 진리에 충실한 신학”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이들은 “우리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신학적 입장을 견지하며 교육해 왔다”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반적인 방편들이 우리 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상원 교수님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수천 명의 제자들과 후학들을 가르치시며 우리 교단 교회 및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 보여주시신 신학의 교훈과 신앙의 귀감을 생각할 때, 총신대학교의 구성원들뿐 아니라 우리 교단과 많은 교회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교수님의 해임을 수용하기 어려운 마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 동안 이상원 교수님께서 학교를 위해 기여하신 업적과, 신학대학원의 신학적 정체성, 그리고 향후 신학 교육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이번 중징계를 재고해 주실 것을 이사회에게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또 “총신대학교를 사랑하고 염려해주시는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 앞에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 총신대학교를 바른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 위에 다시 세워주셔서, 총신대학교가 교회와 성도들을 바르게 섬기는 사명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 유기성 목사 “코로나 징계는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뜻 있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 과정이 힘들다 해서 무조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수 없다”며 “우리를 바로잡으실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목사는 지난 17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그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감사한 것이었으나, 깨닫게 된다”며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일이 답답할 텐데,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며, 이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유 목사는 “하나님이 코로나 전염병을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만큼은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확산을 보며 놀랍다, 충격이다, 오래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다고 하시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을 아주 분명하게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유 목사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맞춰 분당 문을 닫아야 하고 QR코드로 출석체크를 해야 하고 앉은 자리 번호도 써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간 꼭 지켜야 할 것들, 예배 시간 엄수하는 일, 모든 일에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일, 이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바로잡아가시려는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하는 의사에게 힘들다고 제발 그만하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

리를 바로잡아가시는 이 과정이 힘들다 해서 무조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담당할 텐데,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며, 이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유 목사는 “그 중 하나가 가정”이라며 “해마다 가정에 대해 말씀드리지만 율해는 특별하다. 코로나 확산으로 예배를 모일 수 없었을 때에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정이 진짜 교회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준비되어 있지 못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도들의 시대와 같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여야 한다. 그간 교회에서만 한다고 생각했던 예배가 가정에서 드러져야 하고, 교회에 맡기지만 했던 신앙교육도 이제는 가정에서 되어야 하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일도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일 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 믿음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가정을 바로 세워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자”고 당부했다.

송경호 기자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정오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아태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기초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06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음 생명의 열매를 심어 생애공로 세이브 세이브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열매공로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열매를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일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훈련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애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몰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 예배 : 오전 9:30 청년부 : 오후 2:00  
2부 예배 : 오전 11:30 English Ministry : 오전 11:30  
3부 예배 : 오전 11:30 금요 기도회 : 오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 오전 5:30 (월-금)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아태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애)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애) 청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애)

**이희담 담임목사**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애)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년 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개강일자: 4월 2일**

\*COVID-19으로인하여 개강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과(B.A)   126학점
신학대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iv 교역학 석사과정   96학점</li> <li>■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li> </ul>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2020 LA, California  
**목회자 및 사모  
복음과 성령 컨퍼런스**  
Holy Spirit Conference  
2020년 3월 9일-10일(월,화)  
9일(월)저녁 7pm  
10일(화)오전 10am-4pm  
**장소: 나눔과섬김교회**  
276 S. Rampart Bl. Los Angeles

**강력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흐르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회장: 이명희목사)**

회 장: 이명희목사  
수석부회장: 박정희목사  
부 회 장: 조은혜목사, 윤에스터목사  
송정순목사, 김사라목사, 노정애목사  
서사라목사, 박예경목사, 조미나목사  
총 무: 조현숙목사

**주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후원: 개혁장로회한미연합총회**  
문의 562)896-3212 (에스더유전도사)  
562)201-4184 (이명희목사)  
714)222-1794 (박정희목사)

**강사: 이상목 목사**  
목회자성령컨퍼런스 주강사  
(한국, 미국, 캐나다, 남아, 동남아 등)  
목회자능력기도회 주강사  
목회자 및 사모 영과영성, 주강사  
펜실베이니아 Erie 장로교회 담임  
KAPC소속 (남부노회 부노회장)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  
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임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PM 2:00-4:00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PM 4:30-6:30

**헨리김 선생**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봄학기 입학생 및 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p><b>학사과정</b> (B.Th/B.A) 126학점</p>	<p><b>석사과정</b> (M.Div/M.A) 96학점</p>	<p><b>박사과정</b> (D.Min/Ph.D) 48학점</p>	<p><b>3월16일 개강</b></p> <p>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213-249-6924</p>
---	---	--	--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 코로나 이후 (1)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에는 총기(총기) 소지를 조사해왔지만, 이제 몸의 온도를 재는 열감지기도 설치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누구나 환영 받고 VIP로 대접받아야 할 예배 장소에서 체온을 재고, 때로는 입장을 막아야 하는 일까지 생길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악수나 허그 같은 인사 방법은 자제되고, 코로나 이후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인사하는 에티켓이 정착되리라 봅니다.

코로나 이후의 예배는 서로의 건강을 객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분들은 본의 아니게 눈치를 보며 많이 어색해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존 및 처음 방문자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이라는 비가시, 비대면 교제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서로의 눈을 직접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온라인의 맛을 본 성도들에게 양질의 신앙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자녀들을 위한 예배 자료들을 풍성하게 제작하여, 인터넷에 범람하는 세속적인 자료들과 선의의 경쟁, 소위 문화전쟁을 제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은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임시적 대안이 아닌, 코로나 이후에도 끊임없이 개발되어야 할 영역임이 분명합니다. 온라인 소통이 세계화되면서 선교의 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기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온라인 수업이 있었고, 트래픽 스쿨도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양질의 내용을 소통할 수 없으면 학교든 회사든 자연도태될 것입니다. 교회만큼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코로나의 위력은 여기에도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여 함께 만남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 정제된 성경공부를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화면으로 다가가는 일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BC & AC, 요즘 만들어진 신종어입니다.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이후의 시기(After Corona)를 일컫는 말로, 코로나 이후 세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정상화' (New Normal)라는 말을 하듯이 이전에 모르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9.11 사태의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이후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공황 문화의 변화입니다. 공황에서 신발을 벗는 것과 물병을 가지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오랫동안 어색했습니다.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공항에서의 엄격한 조사는 죄인 취급당하는 기분이었는데, <글로벌 엔트리> 시스템이 생겨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나름 적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역시 출입 절차입니다. 공항에서 출국/입국 절차도 엄해지겠지만, 공공장소의 출입도 매우 엄격해질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나, 음악회 등 사람이 운집하는 곳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의 출입도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미, 음악회나 스포츠 경기장 입장 시

###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반응입니다



진유철 목사  
나선순복음교회

도 도와주곤 합니다. '한 두 줄만 써주세요.' 이 말로 시작해서 책 한 권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반응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반응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반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미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가 없었고 후원이 없었으니 렌트비는커녕 끼니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반응하기보다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할 때 심일조에 대한 말씀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교회의 심일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먼저 교회 헌금의 심일조를 떼어서 당시 총회와 지방회에 드리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나머지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매달 경험했습니다. 3년9개월 후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여 헌당예배를 드린 그 다음 달부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으로 주님 명령인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안 되는 것을 울면서 순종으로 반응했고 핍박과 고난당하면서 목숨을 걸듯이 실천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아도 큰 성전이나 여러 건물들, 많이 모였던 성도들이나 엄청난 오름 땅값과 같은 것이 잘한 것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했던 믿음이 영광스럽고 복되게 남는 것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믿음은 다 올바른 반응이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매오는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최악의 사람이었지만 지나가는 주님을 향해 맹렬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럴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뜨게 되고,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한 역전승을 이루어 성경에 "바-디-매-오"라는 이름을 남긴 존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디매오의 "반응"은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맹인 거지로 그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일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반응은 믿음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1페니 전략(Even a Penny Technique)'이 있습니다. 암환자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는데 아무 말 없이 모금할 때는 32% 참여, 평균 21달러 기부였습니다. 그런데 '1페니라도 좋습니다.'라고 변화를 주었더니 58%가 동참하고 평균 32.3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사소한 것을 요청하면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10분만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듣고 도와주다가 1시간

지금 저희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예민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벌써 인터넷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간다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이런 작은 반응의 선택으로 인생 후반전이 바뀔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1서5: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한인교회와 미국교회의 문화적 차이



주성철 목사  
태평양 법률협회

하지만, 이와 함께 크리스천이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생각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두려움 때문에 물건 '사재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주 일하며 벌어들여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런 일을 통해 그나마 저축해 놓은 것까지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나라에서 개인에게 생활 보조금을 나누어 주었지만, 아직도 정부에서 전면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존중하고 법 위에는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언론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종교 자유에 대한 권익도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놓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 행동 규제를 완화시킬 때까지 기다리는 그룹입니다. 물론 틀린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들은 교회나 유대교 회당 그리고 가톨릭 성당을 개방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Blue State인 캘리포니아 주, 오리건주, 그리고 워싱턴주는 종교 단체와는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상하건데, 적

어도 9월이 훨씬 지나야 이들이 개방할 의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물론 종교 자유에 대하여 과격한 그룹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엇을 요구하던 상관없이 자신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80% 이상이 확진자가 되어 소수는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은 데모하거나 시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건강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행동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건강이란 것을 무기 삼아 종교 탄압을 했을 때 우리는 가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리건주 주지사는 지금 오리건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위기의 때가 오면 대통령과 주지사는 자신들의 의지대로 30일간 어떤 법령이라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긴급 상태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각 주 의회를 열어 주 상원, 하원 의원들과 의논해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건주 브라운 주지사는 주 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60일간 더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위헌입니다. 이럴 때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

부의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한국 이민자들은 조상으로부터 배우고 몸에 익힌 것이 있는데 정부나 워싱턴주들을 존중하다 보니 거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최상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내게도 권리가 있는데, 내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 아닌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정부의 공무원, 경찰관, 보안관, 시장 등등과 대화의 통로를 열어 우리들의 생각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현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이 나라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과격한 행동은 이유를 불문하고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지사 와 카운티 슈퍼바이저 등등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상황 속에서 Korean-American 정치인들에게 우리들의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국의 학부모회와 미국의 학부모회가 전 반적으로 다른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한국에서의 학부모회는 그저 학교나 교사들을 돕는 차원 정도이지만, 미국의 학부모회는 이것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학교나 교사들을 돕는 일도 하지만, 학교 정책에도 관여

할 수 있고, 특별 행사에 초청되는 감사 검열, 교과서 선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뜨거운 감자로 나타난 것이 성교육 교과서인데, 산호세 근처의 어느 통합 교육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성교육 교과서가 필요 이상으로 인쇄되어 도색 잡지보다도 더 심한 내용과 사진들을 게재해서 이 지역 학부모회가 나서서 반대하여 통합 교육국에서 성교육 교과서를 철회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소식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 목회자 그리고 일반 성도들을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우리 협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종교자유, 부모 권리 그리고 시민의 인권옹호를 위해서 불철주야 도와왔던 법률협회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비영리 단체로 여러분들의 종교 자유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신실하신 크리스천 변호사들을 모아 주셔서 우리 협회와 같은 단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소송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정 비용과 기타 비용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서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그 모든 자료들은 우리 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으로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삶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크리스천 가운데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티셔츠  
 굿미포고  
 머그컵8월분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4년 내 사고면접기 영구수리면 언제든 무료입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할,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어든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향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 ‘빠던’을 즐길 준비가 되었는가?



김정훈 교수  
미드웨스턴 실천신학

“빠던(Bbaddun)”이 인기다. 표준어도 아닌 이 한국 단어가, 유튜브 뿐 아니라 ESPN, CBS 등의 뉴스를 통해 미국 전역에 소개되는 장면이 반갑고도 낯설다. 이미 트위터 상에서도 한국말 ‘빠던’을 영어식으로 표기하여 ‘bbaddu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미국인도 적지 않다. 팬데믹 일상 중에 아시아인 나라 바라보는 일부 미국인들의 불편한 시선들과 심지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가는 무례함에도 더는 마음 상하지 않을 만큼 익숙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빠던’에 대한 미국인들의 뜨거운 반응이 무척 신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현상은 지난 5일 열린 한국 프로야구 개막식에서 한 선수가 평소처럼 배트를 던진, 아주 일상적인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ESPN은 무관중으로 시즌을 시작한 한국 프로야구(KBO)의 중계권을 사서 개막 첫 경기를 중계했는데, 생소한 한국의 야구 문화가 미국인들에게 소개된 것이다. 현재 많은 미국의 야구 팬들은 ‘빠던’을 비롯하여 ‘치맥’, ‘피자 대형 광고판’ 등 낯선 한국의 야구 문화를 즐기거나 기꺼이 늦은 밤까지 시차를 감수하고 있다. 낯설고 다른 한국의 문화가 그들에게 불편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있다.

‘빠던’은 일명 ‘빠따(배트) 던지기’의 줄임말이다. 타자가 홈런이나 장타를 친 후 배트를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야구의 본고장인 메이저 리그에도 ‘배트 플립(bat-flip)’이라는 정식 용어가 엄연히 있다. 미국에서는 배트 플립을 ‘상대 투수를 위협하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이해하고 이를 몹시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상대 투수를 도발하려 일부러 배트 플립을 하는 타자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 다음 타석에서 투수의 위협구(beanball)를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야구는 정반대이다. 어떤 투수도 상대의 빠던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며, 관중들은 이 세레머니를 그 타자의 시그니처(signature)로 여겨 환호하고 즐긴다.

평소 아시아권 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보여 왔으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아시아에 대한 적대

감을 감추지 않던 미국이다. 그런 미국이 자신들과 전혀 다른 한국의 야구 문화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빠던(bbaddun)’이라는 용어까지 즐기는 것은 왜일까? 미국 내 한류 확산에 대한 분석이 본 글의 취지가 아니기에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으나, 그 배경에 대해 몇 가지만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기생충’이나 ‘BTS’로 대표되는 한국 콘텐츠의 재미와 품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배송 지연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라면과 달리 짜장라면만 두 달 가까이 마트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완판되는 것을 보면, 영화에 등장한 ‘짜과구리’의 파급력과 미국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팬데믹으로 메이저리그 개막이 연기되면서 수많은 야구팬의 관심이 자연 한국 프로야구로 집중되었다. 메이저리그 대신 소비 대체재 정도로 여겼던 한국 프로야구가, 정작 야구라는 본연의 콘텐츠보다도 야구 파생 문화로 인해 더욱 상품성을 갖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문화적 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위 두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한국이라는 이문화(different culture)에 대한 적응 단계(문화 차이에 대한 부정, 방어, 최소화 단계)가 순식간에 생략되었다. 그 결과 미국인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문화 수용의 과정에 진입함으로써, 한국의 야구 문화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즐기고 있다.

이처럼 관점의 차이는 국가나 지역뿐 아니라 개개인에게 모두 존재하는, 매우 미묘하고도 단단한 구분기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듯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수용하고 습득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한, 시간과 노력이 모두 필요한 공동의 과정이며 특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형성된다. 라인홀트 니부어가 “인생의 의미는 찾았다 싶으면 또다시 바뀐다”라고 말한 것은, 한 인간이 불변하는 절대적 관점을 가질 수도 없으며, 또 불변한다 여기더라도 실상 계속 바뀐다는 사실을 간절하게 정리해준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팬데믹이라는 낯설고 불안한 시대를 수용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익한 몇 가지 관점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익숙함을 넘어 새로움을 즐기는 태도를 가져보자. 물론 이 부분은 타고나는 기질과 많은 상관성이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자신의 익숙함 뒤에 숨겨, 새로운 것 혹은 낯선 불편을 피하려 하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무척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움을 벗어나고 새로운 상황이 주는 긍정적인 면들을 낙관적으로 즐기려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한 홈 오더(stay at home order) 기간 동안 거의 모든 대화의 화두는 ‘코로나’였고, 절대적으로 많은 경우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이었다. 그 래서인지 ‘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등 과거 지향적인 말을 통해, 현재의 낯선 상황과 불안한 미래를 피하고 과거라는 익숙함에 속하고 싶은 상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실할 수 없는 미래는 현재의 불안이 되고 이는 곧 과거의 익숙함을 그리워하게 한다. 때론 그 과거가 마냥 행복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이처럼 익숙함에 안주하려 할 경우 현재의 즐거움을 찾는 일에는 마음을 쓸 여력이 없다.

코로나 초기에 ‘가게 수입이 줄거나 중단되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귀하다’는 말들을 많이들 했다. 모두 진실이었을게다. 하지만 재택기간이 길어지자 가족 간에도 이 상황을 누리기는커녕 ‘지겨움’에 익숙해졌나보다.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가정 위기가 확대된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온종일 집에서 좌불안석 어찌할 바 모르면서도 삼시 세끼 밥을 축내는 가장이 원수처럼 보인다는 아내의 말, 이 분위기를 아이들이 모를 리 있을까? ‘가족과의 시간’이라는 소중한 선물이 폭탄으로 변질된 것은, 공통적으로 변화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누릴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즐겨 보던 ‘쿵푸팬더’에서 “내가 익숙한 것만 하고자 한다면, 너는 결코 더 나아질 수 없다”고 말하는 우그웨이 대사부의 조언이 떠오르는 요즘이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쩍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교훈하는 전도자의 지혜를 받아들여야(전 7:4).

안타깝게도 현실은 ‘뉴 노멀(New Normal)’로 수렴되는, 경제와 사회뿐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예전과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예전과 똑같은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니 받아들여야. 대신 이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즐기려는 태도를 가져보자.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신중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철학자들이 본령으로 삼는 ‘새로운 관점의 채택과 해석’의 심오한 사고를 하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당국의 코로나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변화 속에서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낯선 불편 속에서도 가치와 즐거움을 누리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가족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가 산책하며 대화하는 즐거움에서부터 시작해볼 것을 권한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에 만족하는 삶의 지혜이다. 다른 말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지 있게 누리는 지혜’이다. 전도서 11장 9-10절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 Carpe Diem (“현재를 살아라”)이 아니겠는가? 바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누리기는 쉽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교훈을 뻔한 명제라 무시하는 것은 교만이다(사는 것조차 쉽지 않다 여기시는 분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라). 이 지혜는 삶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그 핵심이다.

‘팬데믹’, ‘코로나 재난’ 등의 무서운 말들이 당국의 키워드이다. 분명한 위기 상황이며 수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가 그렇다 해서 나도 함께 두려워하기만 하며, 휴지와 고기 사재기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삶은 아닐 것이다. 랐프 월드 에머슨은 이런 삶의 모습을 두고 “우리는 언제나 살아갈 준비만 할 뿐, 정작 삶을 살지 않는다”라며 일침을 날린다. 당신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휴지를 구입하느라 흘려버린 오늘이 시간이, 정작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재택근무를 시작할 때 ‘집에서 일하면서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큰 기대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언제까지일지 모를 이 기간에 몇 권의 책을 읽고 몇 개의 강의 녹화까지 마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을 수립해 놓았다. 하지만 사무실로 복귀하는 이 시점에 돌이켜보니, 계획에 대한 성취보다는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또 이를 가족에게 풀어낸 못나 내 모습이 마냥 아쉽기만 하다. 미래 일정 시점을 재단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이루어 가는 과정 자체를 옳다 또는 그르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결과를 떠나 삶의 가치와 직결된 중요한 주제임이 분명하다.

“언제 이 상황이 진정되고 경기가 회복될까요?”, 이 질문에는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확답할 수 없다. 확정할 수 없는 미래이기에 우리의 불안감은 명분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오늘을 불안하게 소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사는데 정답이 어딴’의 저자 대니얼 클라인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 모자라도 지금 있는 그대로를 즐기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미래를 외면한 채 율로(YOLO, you only live once)가 되

라는 것이 아니다. 오늘을 가지 있게 보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익숙한 우그웨이 대사부의 조언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보자.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and today is a gift. That’s why they call it the present.”

이 글을 쓰는 내내 위 층에서 ‘봄~치카 라카 봄~’ 하면서 알아듣기 어렵고, 몹시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두 딸이 춤을 추고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즐겨주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내 귀는 이 소음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이 음악이 내게는 작지 않은 고통이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내 잘 참고 있다. 귀에 들리는 음악에 대한 선호도조차 바꾸기 힘든데, 가치와 사고의 관점을 달리 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결론은 내 노력만으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기를 바라는 미신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 상황이라는 현실을 사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진정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 게하시는 아람 군대라는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직시했고 이로 인해 두려워했다. 하지만 엘리사는 믿음으로 게하시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 더 많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실상을 보게 하셨다(왕하 6:15-17). 위기를 이기는 것, 두려움을 떨치는 것은 정신 승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한다.

유래없는 팬데믹의 낯설고 불안한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라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실상이 우리로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눈을 갖게 한다(히 11:1). 그 눈은 일상이 바라보는 현상들이 아니라 환골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는 지혜의 눈이다. 긴 글에 피로한 여러분의 눈과 함께, 이 시대를 가지 있게 살며 하나님의 위로와 방향을 제시하는 지혜의 눈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실 것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8)”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상황도 딱히 나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 번쯤 밤잠을 포기하고라도 한국 프로야구를, 미국 방송으로 봐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야구가 아니라, 야구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빠던’을 즐길 준비가 되었는가?

## 교회행사, 수련회, 단체를 위한

# 맞춤형 후드 티셔츠

원하시는 **문구와 로고**를 넣어서  
**우리교회만의 후드 티셔츠**를  
예쁘게 제작해보세요!



**할인 이벤트**

25개	\$ 19.5	(개당)
50개	\$ 18.5	(개당)
100개	\$ 17.5	(개당)

only \$15.99 (개당)



그레이  
블랙  
네이비  
차콜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 고르반이란 변명의 불효

마가복음 7:1-13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예수님의 공생애 과정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지만 하면 사람들은 다 그들의 믿음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적 기사를 통하여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 가지라고 무척 애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무언가 실수하지는 않는가, 무언가 다른 것을 전하지는 않는가하며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꼬집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 1. 장로들의 유전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판 손(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판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인지 3-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으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 율법을 더 잘 지켜보겠다고 사람의 판단 기준에서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저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더 잘 지켜보겠다는 그들의 가식 속에는 교권에 맞들인 그들의 실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떠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더 잘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며, 실천으로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자기네들과 상관없는 율법인 것처럼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만 강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되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짓밟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만 지키기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교육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교권을 가지고 행세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수고했으니, 뭔가 좀 챙기기 위해 장로들의 유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모범으로 하고 더 엄한 생활 실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으로 포장한 이 장로들의 유전을 강제

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매를 때리던가 아니며 옥에 가두던가 벌금을 물렸습니 다. 이 유전법을 지키지 아니했다가는 당사 신상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무시 하더라도 유전법에 신경을 쓰면서 그것을 지키느라 백성들의 신앙까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 2.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6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13)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법에 매여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제쳐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식을 정확히 드러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9절),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흠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10절) 모세의 율법에 따라 네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인데, 너희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께 필요한 몫을 드러야 했는데, 그것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 하나님만 섬기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를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그들의 외식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전세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세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한가 세상 임금이 누게 관세와 전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나”(마 17:25)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왕자가 무슨 세를 내느냐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맞다고, 아들은 세를 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 낚으면 그 입안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주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에게서 얻은 것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2절 13절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유대인으로서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 불가하냐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 화폐를 하나 달라고 하시더니, “여기 찍힌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하셨고,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사는 과정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 생활에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사회와 국가에 속한 일원으로서 정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3. 신앙인격을 통한 전도

오늘 설교 제목은 “고르반이란 변명의 불효”입니다. 즉,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경계하십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 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잠 19:26),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 30:17)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할 수도 있고, 벌 받을 짓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방해막이로 내세우거나 이용거리로 팔아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에서는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려서 헌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다고 할 때, 남편과 아이들은 어찌되지 않든지 교회 일이 우선이라고 시간이 되어서 나와 버린다면, 그 남편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면, 미리 집안일을 끝내놓고, 남편과 자녀들의 식사문제도 해결해 놓고, 자신이 집을 비우는 동안에도 티가 나지 않을 만큼 정리를 한 후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인격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야한다고, 봉사해야 한다고 자신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핑계쳐 버리고 교회 온다면, 오는 것은 옳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핑계거리가 되었으니 그 행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무지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비신앙과 비인격적인 언동으로 하나님을 핑계거리로 이용해 먹지 말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항상 안 믿는 사람보다 배나 더 부지런을 떨어야 합니다. 매사에 상대방의 입장을 내 입장보다 더 이해해주고, 더 좋게 해 주기를 힘쓰면 시비 걸어올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또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원망, 불평, 시비가 없어질 것입니다. 안 믿던 상대방도 감동이 되어서 나도 교회 가볼까 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인격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안, 실재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언론학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계교회포럼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고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총회 최우수상, 미션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회 최상, 찬양문화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직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제왕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간조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명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소강석 저음 339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교단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정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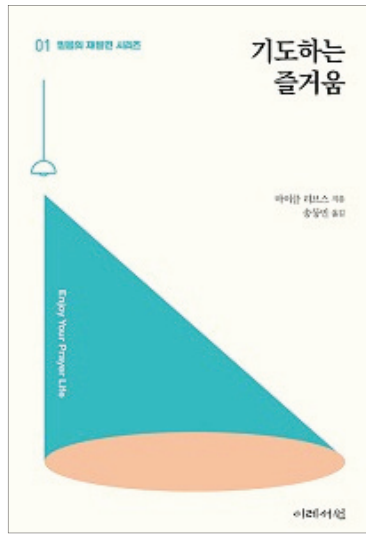
신정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정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희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년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두노회장, 총회 군 놓이촌 부원,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총회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대학교 객원교수, 연남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쿼란, 쿼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 “기도 않는 지도자, 효능 안 믿는 상품 파는 셈” 신간 <기도하는 즐거움>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지 않는 지도자는 자신도 그 효능을 믿지 않는 상품을 파는 셈이다.”

신간 <기도하는 즐거움>은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 리더들을 자극하며 일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한다.

저자 마이클 리브스(Michael Reeves)는 영국 유니온신학교 학장이자 조직신학 교수. 이번 책에서 그는 학문적인 이야기는 내려놓고, 목회자의 입장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전한다.

크리스천들을 향해 “안타깝게도 우리 중 대다수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고 말한다. 특히 서구 교회는 기도 문화와 빠르게 멀어지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과 별로 교제하지 않는 듯하다”고 진단한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니,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이런 상황은 고린도 교회를 떠올리게 한다고. 이에 대해 “바울의 편지를 통해 당시 고린도 교회 지도

자들이 자기를 과시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께 의존하는 대신, 자기 사랑과 자기 의존의 성향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한다. 자기 의존은 기도하지 않는 상태로 이어지고, 결국 기독교적 진실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기도를 “신앙의 주된 실천”으로 꼽는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나 이론을 통해서도 기도의 진리를 확증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표지는 실제적인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앙 생활에서 기도는 “기분 나쁠 정도로 모든 것을 드러내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거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본모습을 보여주셨다.

저자는 “성자이신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히 누리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 늘 기도하고 계셨다”며 “그러므로 기도는 곧 예수님이 지금까지 늘 누려오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법을 알아가는 일”이라고 말한다.

또 기도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존 칼빈의 말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게 된다. 즉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허락

해주시며,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도하게” 된다.

성령도 도우신다. 기도자의 연합함을 모두 알고 헤아리면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때문에 기도의 거장인 양 가장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결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실로 미숙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마음속 바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털어놓으면” 된다.

이민선 기자



마이클 리브스 교수 (© 유니온신학교 트위터)

기도하는 즐거움  
마이클 리브스 저, 송동민 역  
이레서원 | 88쪽

기도는 우리의  
독립적인 성향과  
개인적인 야심을  
내려놓는 일이다.

# “성전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

## 신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J. 대니얼 헤이즈 (사진 출처: Baker Publishing Group)

께서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그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에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한 곳이었다. 저자는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 문으로 걸어 들어오시기 전까지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중된’ 임재가 없었다”며, 오직 예수님만이 “헤롯이 지은 웅장한 성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흘러가 예수님은 배척되었고 결국 처형당했다.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아닌, 그저 커다란 돌무더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성전은 본 기능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백성의 만남은 사라지지 않는다.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인 예

수님께서 인간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장 20절)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총 8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장의 제목은 ‘성전과 성막: 개요’, ‘하나님의 동산 성전’, ‘인약궤와 성막’, ‘솔로몬의 성전’,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 ‘제2성전’,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전’, ‘결론: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이다. 성경을 연대기순으로 검토해나가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능력, 거룩하심이 ‘성전’ 혹은 ‘성전과 같은’ 장소를 통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는지를 살펴본다.

성전 이야기를 에덴동산에서 시작하는 것이 눈에 띈다. 에덴동산이 성전과 같은 모양을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 그곳에 거주”하셨다고 의미를 부여

한다.

또 요한계시록 21~22장에서 성경 이야기의 결말에 다다를 때,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새 성전의 필요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린다”고 말한다. 계시록 22장 1절~5절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다시 한 번 ‘동산’에 나타나는데, 거기서 ‘그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라며, 성전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친밀한 관계임을 강조한다.

저자 J. 대니얼 헤이즈(Hays)는 미국 남서침례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미국 와시타 침례교 대학교(Ouachita Baptist University)에서 기독교학과 학장 및 성서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 ‘베이커 삼화 성경 핸드북’, ‘Grasping God’s Word’ 등이 있다.

이민선 기자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J. 대니얼 헤이즈 저  
홍수연 역  
새물결플러스 | 256쪽

구속사로  
본  
성막과 성전

신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은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구속사를 이해해보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저자는 성막과 성전의 중요성이 “물리적 건물이 있지 않고, 하나님



**바이러스를 죽이는 마스크가 왔다!**

# VK마스크 시판

특수 발효소금의 초강력 필터 개발!  
마스크는 필터링이 생명!

**U.S. Patent Serial No.: 88819662**

**VK 소금필터의 특징**

바하만 청정지역에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 진흙뻘에 1년간 숙성시킨후 4년간 햇빛과 바람으로 만든 자연산 천일염으로 특수코팅!  
중금속 0%! 간수0%! 미세플라스틱0%! 85가지 미네랄 천일염!  
특수소금필터는 호흡기를 통해 마스크에 습도가 생기면 소금분자들이 분자 분해를 일으켜 호흡기 방향으로 이동하여 보호해준다.  
일반 마스크는 습도가 발생하면 박테리아균이 발생되어 장시간 사용할 수 없지만 VK 마스크의 천일염 특수 패드는 멸균과 동시에 입안에 냄새도 제거해 준다.  
VKM 소금필터는 특수 코팅되어 3주 이상 사용할 수 있다. (1회 찬물에 1-2분 세척가능)  
마스크 필터에는 특수소금이 코팅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접근하면 소금의 결정이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바이러스가 사멸된 마스크는 균이살지 못하므로 재활용도 가능하다

**1개 \$20**

1인당 10개 한정  
3주 이상 사용가능



**특수 천일염 필터 마스크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판 매 처**

 VK 마스크 특수필터는 코셔미네랄 천일염 소금연구소 제공.  
KoshreMineralSeaSalt.com

 **100% HANDMADE  
MADE IN USA**

 **VKMask.com  
Virus Killer Mask  
VKMask, Inc.**

**Space Eum Cafe**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213.386.3896  
213.605.2772**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세계각국 및 지역 대리점 이메일로 접수: info@vkmask.com



# 숫자를 사랑합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와 연방 자금의 숫자로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회계사는 아니지만 이런 이유로,  
더해지는 숫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할수록, 우리 지역사회가 연방 자금을 지원받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매년 6,75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연방 자금이 학교, 보건소, 도로 등과 같은 기반 시설에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은 지역사회 발전의 일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응답한다면, 지역사회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2020CENSUS.GOV/ko** 에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